

# 체르노빌原電事故 經過日誌

月日	소	련	月日	IAEA 및 世界各國
4. 26	오전 1 시 23분,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 4號機에서의 事故發生. 4號機의 出力이 急증상승, 대량의 水蒸氣가 放出, 反應해서 水素가  발생, 그것이 爆發해서 原子爐를 破壞, 放射能 放出을 일으킴. ▼오전 1 시 23분 事故發生時 自動시스템 調整係와 운전원 2 명이 사망. ▼현장에 도착한 消防隊는 적어도 5 개장소에서 불길의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했으며 불길은 근접해 있는 3號機 쪽으로 번져 發電所 全體에 퍼지면서 케이블 통로가 있는 곳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. 이 불의 原因은 制禦室, ▼오전 5 시까지 진화, 發電所와 주변지역에 出入禁止. ▼발전소지역의 放射能의 最高準位는  매시 10~15 밀리렌트겐, 기에후에서는  매시 0.3~0.4 밀리렌트겐. ▼30km 되는  부락부터  피난계획을  시급히  세움.		4. 27	Sweden : 폴스마르크 原子力發電所에서 異常한 放射能濃度를 記錄.
			4. 28	Sweden各地 : 핀란드에서 異常値를 檢出.
			4. 29	Sweden : 소련 外務省에 대해서 質問書를  전하고, 소련이 早期警報를 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 유감의  뜻을  표명. 日本科技厅 : 日本國에  대한  放射能의  영향에  있어서  原子力發電所  등의  주변  環境  放射能  Monitoring 및  32都, 道, 府,  縣에  대하여  放射能  監視網에  의한  관측의  강화를  지시.
			4. 30	美上院 : 에너지·天然資源委員會  소련  사고에  관한  公聽會  開催.
4. 27	▼오전 2 시정각. 프리벳지市에  피난명령. 대량으로  동원된 버스로 2 시간 45분  동안에  약 4 만명이  피난하고 그 버스의 列은 20km에  달했다. ▼피난민의  合計는  9 만2 천명. 의복,  모포,  텐트  등을  무료로  공급하다. ▼피난민, 특히  어린이들에게는  잘된  保護施設  이라던가  비오넬  캠프를  할당하다. ▼原子爐의  爆破구멍에는  합해서  5 천통의  모래,  납,  도르마이드  봉소  등으로  채움. ▼의사,  간호원,  검사기사,  線量測定員  등  1,300명  이상,  구급차  240대가  주변   지역에서   활동중. ▼프리벳지市의  양  기슭에  방사능을  먼  물의  유입을  막기  위해  提坊을  쌓고  있는  중.		5. 1	IAEA記者발표 : IAEA는  소련  原子力利用  國家委員會로부터  正式로  事故報告를  받았다. IAEA는   조언과  원조의  제공을  제기하다. 현재  의  경우  國境을  넘을  영향에  대해서  各國에  警報를  발표할  상황은  아니다.
			5. 2	美백악관 : 소련  事故調査  때문에  省廳間  검토  group을  설치.
			5. 3	日本科技厅 : 外務省의  要請으로  放射線  醫療의  專門家  2명을  소련,  Poland,  Sweden에  파견. 東京, 千葉, 神奈川에  3일  採取한  雨水  등으로부터  사고와   관련된다고  생각되는  I-131을  檢出.
			5. 5	主要先進國  首腦會議(東京Summit)에서  체르노빌  原電事故에   대한  聲明發表.
			5. 6	世界保健機構(WHO) : 原發事故에서  소련이  의외는  우선  안전하다고  結論.
4. 29	國營타스通信 : 체르노빌  原子力發電所에서의  事故를  처음으로  보도,  原子爐  1基의  損傷과  影響을  받은   사람들에게  救助活動을  하고  있다는  것과   정부에  事故調査委員會를  設置했다는  것  등을  發表.		5. 8	IAEA : 事故現場을  上空에서  視察한  브릭스 사무총장은  事故爐로부터   적은  연기  솟아오르는  것을  보았다고  발표.
4. 30	타스通信 : 시체르비나  소련閣僚會議副議長을   위원장으로  하는   정부위원회가   현장에서   활동하고  있다는  것. 또  4號機에서  사고가  발생하여  原子爐建物の  일부를  파괴,  放射性物質이  漏滅.  이제까지  2명이  사망한  외에   주변의  주민이  避難하고  있다고  發表.		5. 9	IAEA事務總長,  모스크바와  빈에서  記者會見 :  事故爐는  Concrete로   밀폐하는  작업중,  가까운  빈에서  소련의   전문가와  함께   사고를  검토할  國際會議을  開催.  소련  國內에서  事故爐와  同型的  原子力發電所의  稼動停止  措置는  하지  않았음.
5. 1	타스通信 : 2명이  사망하고  197명이  入院,  49명이  退院,  原子爐는  停止하고   주변의  放射線準位는  낮아지고  있음.  被災者중  18명이  重態.			OECD原子力機構(NEA)의  「原子力施設에  관한  安全委員會」가  開催되어  記者發表 :  事故爐는  OECD  各國의  安全基準를  만족하고  있는  原子爐와는  매우  다르다.  原子爐의  安全技術  上の  問題와  運轉經驗에   대하여  OECD  各國
5. 2	타스通信 : 事故의  影響은   자력으로   제거되지만   협력은   환영한다.  미국의  放射線醫學의  專門家  겔  博士가  소			

	<p>런에 입국했고 IAEA (國際原子力機構)의 브릭스 事務總長을 초대하였다.</p> <p>5. 6 政府事故調査委員會 베드로산스 原子力利用 國家委員會議長이 기자회견: 爆發은 4월26일 오전1시 23분, 原子炉 停止操作中에 發生. 204명이 被曝되고 治療中 18명이 중태, 작업원의 사망은 1명이 燒死, 1명이 落下物에 의한 死亡. 爆發의 原因은 化學爆發의 可能性이 높음. 헬리콥터를 사용해서 약 4,000톤의 모래와 남을 4號機에 뿌려 새로운 放射性物質이 流出되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됐다.</p> <p>프라우다發表: 爆發은 原子炉建物の 構造物을 파괴시키고 Engin room의 塗裝에 불이 붙어 내부 화재가 發生. 첫번째의 爆發 후 放射性物質의 일부가 하늘로 飛散하고 原子炉 中心에서 일어난 두번째의 爆發이 炉心(부분) 溶解過程의  발달으로 생겼다.</p> <p>政府調査委員會가 發表한 소련 각지의 放射線量: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 敷地境界地點에서 최고치가 매시 10~15밀리 렌트겐, 운전원 등의 거주지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는 5월5일 현재 가장 높았던 4월27일의 수준의 2분지 1 내지 3분지 1로 감소하고 있다.</p> <p>기에후에서는 최고치가 매시 0.2밀리렌트겐,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비롯해서 페르샤공화국에서는 IAEA 및 소련 보건성의 기준 범위내에 있음.</p> <p>5. 10 ▼放射性物質의 流出은 實質上 停止되고 出荷되는 야체는 밤에서와 점포에 도착할 때 점검을 받고 있다. 도로는 평상시대로 洗淨되어 가고 있다.</p> <p>5. 14 코르바초프 書記長, 국영텔레비전에서 原子力發電所 事故에 대해서 演說. 事故의 概要에 대해서 언급, 또 IAEA의 범위내에서 事故情報提供시스템의 확립과 原子力安全專門家の 國際會議를 提案.</p> <p>▼오늘까지 放射線症으로 진단되어 299명이 入院, 35명이 많은 放射線量에 피폭. 그중 발전소직원 1명과 消火에 참여한 소방사 28명중 6명, 합계 7명이 사망.</p> <p>5. 21 蘇聯 原子力安全國家委員會 副議長시도렌코는 「사고는 實驗研究作業을 하는 중에 일어났다」고 밝혔다. 그 實驗의 內容은 發電所의 몇개 시스템의 체크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말했다.</p> <p>5. 22 蘇聯 原子力利用國家委員會 副議長 세미요노프는 IAEA의 緊急理事會에서 事故의 概要 및 死亡者 15名이라 밝혔다.</p> <p>5. 26 ▼위로닝 副首相은 프라우다紙 기자와의 會見에서 「殘留熱反應은 鎮靜化하고 있지만 4號機 Unit 자체의 放射能準位는 높으므로 특별한 機械裝置를 쓰고 있다. 原子炉  밑에는 基礎를 만들어 爆發로 생긴 推積物을 防護物로 “遮蔽” 할 뿐 아니라 그의 밑에는 기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. 가까운 곳에 2개의 콘크리트 벽이 이곳에 운반되어 오고 강력한 Trailer로 推積物 쪽으로 운반해서 설치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生體遮蔽가</p>	<p>이 중장기적으로 협력, 조사할 필요가 있다.</p> <p>日本參議院本會議: 소련사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결의.</p> <p>5. 16 日本原子力安全委員會: 소련 原子力發電所 事故調査 特別委員會가 처음 會合: 「事故經由의 推定」 「Source term의 推定」에 대한 작업 group의 設置.</p> <p>5. 17 日本放射能対策本部代表幹事會: 소련 사고에 의해 일본의 放射能汚染은 大氣中の 浮遊塵으로 보면 거의 平常値에 회복했다는 것을 確認. IAEA는 定例理事會를 開催하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4개의 國際會議(7/22: 原子力發電事故時의 緊急通報와 相互援助를 위한 國際協定起草專門家會議, 8/25: 同事故에 관한 평가회의, 9/24: 각 원자력장관, 原子力安全性에 관한 國際會議, 11월: 原子力 안전에 관한  전문가회의) 개최결정.</p> <p>〈各國의 影響〉</p> <p>Greece: 주부들 사이에 混亂狀態發生.</p> <p>▼식품의 放射能汚染을 두려워 粉乳, 병에 든 mineral water, 냉동야채 등을 구하려고 슈퍼마켓에 殺到. Panic狀態가 일어나고 있다. 그 외에도 配達되는 차량을 습격해서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뺏으려는 사건도 발생하여 경찰이 수습에 나섰다. 더욱 옥소에 대한 낭설이 퍼져厚生省은 국민에게 PR을 계속하고 있다. 당국은 「加工乳가 강력한 감독하에 다시 판매될」이라고 발표.</p> <p>정부는 生産者가 받은 被害에 대해 소련에 배상코자 歐州共同體 諸國間에 協議中이라함.</p> <p>西獨: Pu 검출</p> <p>▼뮌헨 근교의 노이헤 아베루크에 있는 放射線環境研究所는 방사능 낙진중에서 Pu을 검출하였다고 발표.</p> <p>11일 보고에 의하면 Pu-239가 0.04Bq/m<sup>2</sup> Pu-238이 0.014Bq에 달했다. 그러나 이 放射能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동원구소는 설명하고 있다.</p> <p>▼정부는 피해농가에 긴급 원조를 결정. 서독정부는 방사능에 의한 물질적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긴급원조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각 주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함.</p> <p>파이어룬 정부는 放射線防護委員會의 권고에 따라 농산물 판매가 불가능해진 농가에 대해서 세금납부를 猶豫할 것이라고 발표.</p> <p>Spain: 소련, 東歐로부터 食料品輸入禁止.</p> <p>Italy: 전국에서 모인 10만인 데모대가 원자력에 반대하며 시가를 행진.</p>
--	---	--

<p>이루어져야 하므로 작업의 범위도 확대될 것」이라고 말했다.</p> <p>6. 3 자조프 蘇聯保健省次官: 記者會見에서 死亡者 25名, 89名은 이미 退院했다고.</p> <p>6. 6 美醫師 로버트·게일 博士가 모스크바에서 記者會見.</p> <p>① 入院患者299名은 原電從業員, 消防士, 醫療關係者外에 약3km 떨어진 곳의 住民 2名 包含.</p> <p>② 重患者는 80名</p> <p>③ 1,000名~2,000名 정도  강한 放射線에 피폭推定, 이 중 400~500名 精密檢診 必要.</p> <p>④ 100~200名이 100렘以上, 100名이 300렘 以上, 약50名이 500렘 以上의  피폭推定.</p>	<p>소련대사관 앞에서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양초행렬을 거행.</p> <p>Holland: 정부는 事故內容이  확실해질 때까지  계획되어  있는  2基의  原子炉建設을  연기할  것을  결정.</p> <p>Yugoslavia:  ▼두번째로 86년부터 90년  사이에  100萬KW  原子炉建設계획을  단념했다고  전해짐.</p> <p>▼스르파니아 공화국의 首都  류쁘리아나에서  10일  수백명의  시민이  정부나  소련정부에게  事故의  경과에  대해서  충분한  정보를  제공하지  않은  것에  관하여  抗議.</p>
---	---

## 에너지(研), 同位元素室의 새研究開發

### 1. 國產 <sup>99m</sup>Tc 간편추출장치의 製作供給

한국에너지연구소 동위원소실에서 개발한 <sup>99m</sup>Tc 간편추출장치(本硯회 동위원소회보 제1 권 창간호에 게재)를 부산 메리놀병원에 무상으로 대여, 설치를 완료 하였다.

메리놀병원은 동장치의 성능실험 및 <sup>99m</sup>Tc의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거친후 7월초부터 한국에너지 연구소에서 <sup>99</sup>Mo을 공급받아 <sup>99m</sup>Tc를 추출하여 환자의 암 진단에 이용하고 있다. 과거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<sup>99m</sup>Tc Generator를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국산품의 이용으로 인한 병원측의 경비 절감과 순도가 높은 <sup>99m</sup>Tc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. <sup>99m</sup>Tc 간편 추출장치는 한국에너지연구소 동위원소실에서 약 1년간의 성능실험 및 <sup>99m</sup>Tc 품질 시험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대여를 희망하는 병원에 설치하여 주고 추출법에 따른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. 한편 전북의대와 전주에 수병원에서 사용중이던 M. E. K 증발법에 의한 <sup>99m</sup>Tc 추출방법을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새로운 분리법으로 교체시켜 품질향상은 물론 추출시간을 약30분으로 감소시켜 실무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.

### 2. 준위계 및 측후계용 <sup>60</sup>Co 선원생산 공급예정

현재 국내의 각 생산업체에서 준위계 또는 측후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<sup>60</sup>Co 선원을 한국에너지연구소 동위원소실에서도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.

지금까지는 <sup>60</sup>Co 선원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한국에너지연구소 동위원소실에서 <sup>60</sup>Co 선원의 사용실태를 몇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준위계 및 측후계용 선원을 3가지로 분류한 후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생산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<sup>60</sup>Co 선원의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<sup>60</sup>Co 선원을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기술자문도 할 예정이다. 한편 한국에너지 연구소는 S 시멘트 공장에서 회수한 <sup>60</sup>Co 선원을 동위원소실에서 조작하여 <sup>60</sup>Co 선원을 분리하고 연구소에서 생산된 <sup>60</sup>Co 선원을 재장전하여 8월중에 공급,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 아울러 <sup>60</sup>Co 선원 용기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개발하고 필요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.